

선셋·선라이즈로 빛나는 '선샤인 광양'

배알도&망덕포구·서산·마로산성에서 만나는 특별한 해넘이·해돋이

빛과 별의 도시 광양시가 저무는 을사년의 마지막 일몰과 희망찬 병오년의 첫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빛의 명소로 배알도&망덕포구, 서산, 마로산성 등을 추천했다.



550리를 달려온 삼진강이 긴 여정 끝에 짙어 놓은 마침표처럼, 동그마니 떠 있는 배알도 섬 정원과 망덕포구는 노을과 햇살이 머무는 광양의 대표 일몰·일출 명소다. 배알도 일대는 별해는다리, 해맞이다리, 수변공원 등 어디에서나 고즈넉한 노을과 희망차고 찬란한 일출을 볼 수 있어 매년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광양마로산성(해발 208.9m)도 한 해를 반추하고 새해의 각오를 다지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사적 제492호인 마로산성은 백제시대에 축조된 성곽으로, 망루와 건물지, 우물터, 명문 기와 무더기 등이 남아 오랜 역사와 시간의 깊이를 고스란히 전해준다.

한편,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12월 31일 광양의 일몰 시각은 오후 5시 28분, 병오년 새해 첫날 일출 시각은 오전 7시 37분이다.

나지막한 능선이 읍내를 포근히 감싸 안고 있는 광양읍 서산 역시 해마다 특별한 일출을 기대하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광양읍 서쪽에 위치해 서산이라 불리며, 정자와 전망대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광양 읍내를 물론 멀리 순천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특히 무장에 둘러싸인 '서산 어울길'은 장애인과 노약자, 어린이 등 보행 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 있는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이 밖에도 삼화섬, 가야산, 삼봉산, 해양공원 등 감상 가능한 일몰과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이현주 관광과장은 "빛과 별의 도시 광양은 정오의 햇살처럼 별이 잘 드는 양지로, 인상적인 일몰과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가 많다"며 "한 해의 마지막 일몰과 새해 첫 일출이라는 소중한 순간을 빛의 도시 광양에서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고흥군, 제주지역 고흥쌀 판로확대 위한 판촉행사 개최

제주 하나로마트 고흥쌀 소비촉진 행사,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 기대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서귀포 농협과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제주지역 고흥쌀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한 판촉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흥군과 흥양농협이 협력해 추진했으며, 하나로마트에서 고흥쌀을 구매한 고객에게 소포장 고흥쌀을 증정하고, 현장 홍보를 통해 고흥쌀의 생산 환경과 품질 경쟁력을 적극 알렸다.

고흥쌀은 청정한 자연환경과 농업인의 정성이 더해진 고흥군 대표 농산물로, 제주지역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특히 품질과 맛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판매 기반을 구축해 왔다.

고흥군은 이번 판촉행사를 통해 그동안 고흥쌀을 꾸준히 구매한 제주지역 소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제주도 내에서 고흥쌀이 대표브랜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흥양농협 조성분 조합장은 "고흥쌀은 제주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지속적으로 공급되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품질 고흥쌀 생산과 안정적인 유통으로 전국에서 신뢰받는 대표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흥의 청정 자연과 농업인의 땀이 만들어진 고품질 농산물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제주지역에서 고흥쌀의 안정적인 정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행정과 농협이 긴밀히 협력해 고흥 농산물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흥/박도일 기자

순천시, 출생률 5.5% 증가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입증

출산·보육정책 강화로 출생률 증가, 저출생 위기대응 성과

순천시가 올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출산·보육 정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다.

올해 11월 기준 순천시 출생아 수는 1천385명으로 출생률이 전년 동월 대비 5.5%(72명) 증가했다.

올해 대폭 확대 강화한 출산장려 정책 중 하나인 출생수당은 1월부터 시행돼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18세까지 월 20만원을 지급하여 부모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또한 영유아의 비중이 높은 신대지구에는 신대아이사랑 출산 육아용품 및 장난감 대여소를 지난 8일부터 개소해 초기 육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24시간 돌봄 어린이집을 운영, 야간이나 긴급상황에서도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했다.

보육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이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농촌 등 최소 필요 지역을 2배(6개소)로 늘려 운영비를 지원하고, 특히 농촌

지역은 운전원 인건비를 추가로 더 지원하고 있다.

시는 또 지난달 보건복지부 주관 '생애 초기 건강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전문인력이 임신부와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이와 부모가 생애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인 정서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출산과 육아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도시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육정책을 펼쳐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는 미래 도시 순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나주시, 계약심사 직무교육으로 재정 건전성·행정 신뢰도 강화

공사, 용역, 물품 담당자 80여명 대상... 실무 중심 교육 시행

전라남도 나주시가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 행정 운영을 위해 직원들의 실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공사, 용역, 물품 분야 계약심사 직무교육을 통해 재정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19일 시청 이화실에서 공사, 용역, 물품 관련 사업부서 담당자와 계약 담당자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계약심사 직무교

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 가운데 일정 금액 이상(종합 공사 2억 원, 전문 공사 1억 원, 용역 5천만 원, 물품 1천만 원)의 계약 체결 전 원가계산 작성 방식과 단가 산출의 적정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로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예방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교육은 계약심사팀장과 업무별 심사 담당자가 직접 강사로 나서 계약심사

기준, 원가계산 작성 방법, 일상감사 주요 사례, 관련 법령 등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특히 감사실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 점검 사례를 교육에 함께 반영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원가 검토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나주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계약심사 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높이고 사업비 산정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재정 운용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나주/이명열 기자

국립완도난대수목원, 기획재정부와 사업비 증액 협의 완료

342억 원 증액된 1,815억 원으로 보다 규모 있는 수목원 조성

완도군에서 역점 추진 중인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이 지난 8월부터 진행된 기획재정부와의 총 사업비 협의에서 342억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총 1,815억 원을 투입해 보다 규모 있는 수목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들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기본계획·기본설계 용역을 수행하며 완도수목원과 타 지자체의 국공립, 민간 수목원들의 비교를 통해 방문객 편의, 주제원 간 시설 연결성, 색다른 볼거리 조성

등에 초점을 맞춰 기본 설계안을 완성했다.

기본 설계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온실의 노후화로 인한 철거·신축, 수목원 전 구간을 관람하는 모노레일 이용 편의 및 운행 안전성 확보, 모노레일을 타고 접근하는 목구조 전망대 등 사업 규모를 키웠다.

아울러 향후 운영 및 유지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방문하여 난대 숲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수목원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완도/장선우 기자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5년 연속 '전국 1위'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경영비 1억 7천 경감 효과

장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에서 1위에 올라 '5년 연속 전국 1위' 기록을 달성했다.

올해, 장성군은 지속적인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시행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 7천여 만 원 상당의 경영비를 줄이는 효과를 거둬 영농에 큰 힘이 됐다. 적기에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해 기계화 영농 추진에 앞장선 것은 물론, 농기계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도 체계적으로 실시했다.

내년부터는 '농기계 원스톱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업인이 임대사업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장소에서 농기계를 받아볼 수 있는 사업으로, 운반 차량이 없는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사용한 농기계는 군이 책임지고 회수한다.

운송 대상 기종은 1톤 트럭으로 운반이 가능한 자가동력 농기계 또는 인력 운반이 가능한 농기계로 승용제초기, 관리기, 경운기, 공탈곡기, 파종기 등 43종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서비스로 정평이 나 있는 '장성 농기계임대사업'이 5년 연속 전국 1위 기록을 이어가게 되어 매우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농업인의 영농 편의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